



사단  
법인

한미 협회

KOREA-AMERICA ASSOCIATION

제 194 호 (No. 194)

Dec. 18, 2020

## KORUS Weekly Review

### 코리아스 위클리 리뷰

#### I. 언론보도 Press

##### 1. 주한미군, 규제를 늘림으로써 수도권 코로나바이러스 위협수준을 상향할 예정 US Forces Korea will raise coronavirus threat level for Seoul metro area, increasing restrictions

*Stars and Stripes* | Joseph Ditzler | Dec. 11

주한미군은 12일(금) 오후 6시부터 서울시내 및 주변의 설비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위협수준을 상향함. 미 육군 용산기지가 포함된 제2구역의 공중보건 방호태세 단계를 "브라보"에서 "찰리"로 격상한다고 밝힘. 제2구역 내 여행은 공식적이고 필수적인 업무로만 제한되나, 캠프 험프리즈와 오산 공군기지를 포함한 한반도내 여타 기지들은 브라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https://www.stripes.com/news/pacific/us-forces-korea-will-raise-coronavirus-threat-level-for-seoul-metro-area-increasing-restrictions-1.654943>

##### 2. 미군기지 12개 중 용산기지 일부가 한국에 반환되고 있어 Parts of Yongsan Garrison Among a Dozen US Military Sites Being Returned to South Korea

*Military.com* | Seth Robson and Yoo Kyong Chang | Dec. 11

미국과 한국의 관리들에 따르면, 미군이 용산기지 일부와 서울소재 옛 성조(*Stars & Stripes*)지 본사 일부를 한국에 반환할 것이라고 함. 이번 결정은 11일(금) 주둔군 지위협정(SOFA)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내려졌으며 인도시한은 아직 미정임. 회의 후 발표된 성명서는 당사자들이 더 지연할 경우 부대 근처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도전을 악화시킬 것이므로 반환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힘.

<https://www.military.com/daily-news/2020/12/11/parts-of-yongsan-garrison-among-dozen->

### 3. 유럽인들과 미국,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는 데 역병만연을 이용하고 있다고 규탄해 **Europeans, U.S. accuse North Korea of using pandemic to crack down on rights**

*Reuters* | Michelle Nichols | Dec. 12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 만연사태를 자국민의 인권을 더 단속하는데 이용하는 문제가 제기된 후 유엔안보리는 금요일(11일) 북한의 인권유린에 관해 논의함. 안보리는 북한의 인권유린에 관한 공개회의를 2014~17년간 매년 열었음. 안보리는 2018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한 가운데 해당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음.

<https://www.reuters.com/article/northkorea-rights-un/europeans-us-accuse-nkorea-of-using-pandemic-to-crack-down-on-rights-idUSL1N2IR2NZ>

### 4. 역병만연의 고통이 미국식 단발성 경제를 한국으로 가져와 **Pandemic Woes Bring U.S.-Style Gig Economy to South Korea**

*Bloomberg* | Youkyung Lee | Dec. 14

지난 겨울 코로나19의 만연이 서울을 강타하고 많은 사람이 더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으로 인해 수입을 잃음.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미국인이나 캐나다인만큼 제2직업을 갖지는 않지만, 민간 여론조사에는 정규직 외에 자유업(freelancer), 자영업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코로나만연으로 부업도 힘들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12-13/pandemic-woes-bring-u-s-style-gig-economy-to-south-korea>

### 5. 육군, 주한미군 대대장 및 원사에게 인종주의 혐의로 정직처분을 내려 **Army Suspends Battalion Commander, Sergeant Major in Korea Amid Racism Allegations**

*Military.com* | Matthew Cox | Dec. 14

육군은 주한미군 대대장 및 원사의 인종주의, 편협성 및 차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직시킴. 캠프 험프리즈 미8군사령관인 벌레슨 중장의 성명은 혐의의 성격이나 구체적 행동에 관해 더이상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음. *Military.com*은 이 사건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한국육군에 손을 내밀었으나 즉각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음. 벌레슨은 차별철폐를 위해 신뢰, 책임 및 투명성이 중요한 3대 주제라면서, 신뢰는 우리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신뢰부족은 우리

팀의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준비태세와 “오늘밤 싸운다”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함.  
[https://www.military.com/daily-news/2020/12/14/army-suspends-battalion-commander-sergeant-major-korea-amid-racism-allegations.html?ESRC=eb\\_201215.nl](https://www.military.com/daily-news/2020/12/14/army-suspends-battalion-commander-sergeant-major-korea-amid-racism-allegations.html?ESRC=eb_201215.nl)

## 6. 유엔, 인권에 관해 북한을 규탄하고 납북자 송환을 모색해 UN raps N. Korea over human rights, seeks return of abductees

*The Mainichi* | Dec. 17

유엔총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납북자 전원을 일본 등 본국으로 되돌려 보낼 것을 촉구함. 북한의 인권기록을 겨냥한 유사한 결의안이 지난 16년동안 연속으로 채택되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학대가 계속되고 있음이 의심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함. 이 결의안은 북한의 일본인 및 한국인 납북사건과 관련해 "모든 납북자와 관련된 모든 문제, 특히 일본과 한국의 모든 납북자의 즉각적인 복귀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북한에게 요구함.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납치문제를 진전시키기를 바라는 일본은 유엔결의안을 더 이상 공동지지하지 않음.

<https://mainichi.jp/english/articles/20201217/p2g/00m/0in/038000c>

## 7. 미육군과 한국의 한화, 사업을 함께 연구할 예정 US Army and South Korea's Hanwha will research projects together

*Defense News* | Jen Judson | Dec. 17

한국 최대의 방산업체인 한화가 미육군과 방위 체계 및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함. 한화그룹, 한화디펜스 및 미국 전투력발전사령부(DEVCOM AC)는 12월10일 공동연구개발협정(CRADA)을 체결했음. 이 성명서에 따르면, 한화는 미군과 함께 CRADA에 진출한 첫 한국기업이라고 함. 한화와 DEVCOM AC는 이 계약을 통해, 자원, 기술, 전문지식 및 지적재산권을 교환할 수 있게 됨. 한화의 미국사업부사장인 버나드 샴포 전미8군사령관은 성명에서, 이것이 한국의 성장하는 국방부문의 우수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한미의 쌍무관계와 동맹을 더욱 강화해줄 것이라고 말함.

<https://www.defensenews.com/land/2020/12/16/us-army-and-south-koreas-hanwha-solidify-joint-defense-research-pact/>

## II. 연구기관 간행물 Think Tanks

### 1. 남한: 북한인권을 증진하라

## South Korea: Promot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uman Rights Watch* | Dec. 15

국제인권단체들이 연합하여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은 한국정부가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함. 300 여개의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45 개 협회와 관련자 7 명이 모인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ICNK)는 북한의 인권침해와 그 책임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이 갈수록 위약해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함.

휴먼 라이잇스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부국장은 모든 한국인을 위해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한 강력하고도 원칙적인 접근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북한의 유엔체제에 대한 비협조를 지적하고 향후 협상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기로 재약속해야 한다고 말함.

한국은 금년 11 월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을 2 년째 공동 발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음. 한국정부가 북한의 인권기록을 우선순위화 하기를 꺼림은 북한의 고립증대로 악화됨. 북한당국은 코로나19 규제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허가없이 들어오는 누구라도 “무조건 쏘라”는 명령을 받은 초병들로 중국과의 북방국경 근처의 완충지대를 조성한 것으로 보도됨. 9 월에는 북한해군이 코로나 19 예방을 핑계로 북한의 서해 경계선 근처 선박에서 한국 수산공무원 이대준(47 세)을 사살했음.

권은경 ICNK 사무총장은 “코로나 19 에 대한 북한의 균형을 잃고 필요한 조치로 인한 고간과 인권유린은 한국민의 생명과 한반도관련 더 큰 협상의 미래와 직결된다”면서, “문대통령은 남북한 외교를 위해 다른 길을 찾지 말고 코로나 19 에 대한 북한의 악랄한 조치를 규탄해야 한다”고 말함.

ICNK 는 한국정부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12 월 유엔총회 결의 공동주관에 다시 합류하여, 한국이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함. 베네딕트 로저스 전세계 기독교인연대(CSW) 동아시아 선임분석가는 “북한인권에 관한한국의 지도력은 특히 유엔에서 항상 절대적으로 긴요해 왔다”고 언급함. “한국의 현정부는 유엔보고 자체가 규탄하는 김정은 정권의 인류에 반한 범죄를 경시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오히려 다시 일어나 지도적 지위를 재건해야 한다. 항구적 평화는 오직 정의로만 달성될 수 있다.”

<https://www.hrw.org/news/2020/12/15/south-korea-promote-human-rights-north-korea>

## 2. 한국, 사상최악의 코로나19 시나리오에 대비해

### South Korea Prepares for Its Worst COVID-19 Scenario Yet

*The Diplomat* | Mitch Shin | Dec. 15

한국이 코로나19에 대한 뛰어난 대처를 보여줬지만 현재는 재확산을 억제하기 위

해 강력한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일)의 코로나19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마지막 수단인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주말에는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여 격상하지 않았음. 다만 3단계의 준비를 중대본에게 요청했음.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병상 부족사태가 이어져 환자들이 자가격리 상태로 대기중에 있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해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코로나 병상으로 동원했으며, 대한간호사협회는 코로나19환자 치료를 위한 간호사 긴급모집을 실시함.

<https://thediomat.com/2020/12/south-korea-prepares-for-its-worst-covid-19-scenario-yet/>

### 3. 한국의 소프트파워 사례

#### The Case for South Korean Soft Power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Lee C, Bo K | Dec. 15

소프트파워란 강요보다는 설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문화, 외교정책, 정치적 덕목 등에 좌우됨. 2020년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코로나19 대응력, 영화 "기생충" 및 남성밴드 "방탄소년단(BTS)"을 필두로 높아졌고,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 강화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임. 지금까지 한국의 국가브랜드화 시도는 미흡했음. 소프트파워의 영향력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긴장과 갈등이 높아진 현대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귀중한 자원인 소프트파워를 통해 정치적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여타 국제적 사안들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https://carnegieendowment.org/2020/12/15/case-for-south-korean-soft-power-pub-83406>

### 4. 한국 대중문화가 소프트파워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법

#### How South Korean Pop Culture Can Be a Source of Soft Power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Lee C, Bo K | Dec. 15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을 소프트파워로 전환하는 데 연예인들의 영향력을 외교 목적 달성과 연관 짓는 것에 주의해야 함. 정부는 연예인들을 정책적 목표에 직접적으로 참여시킬 필요는 없고, 연예인, 팬, 외교정책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대중이 사안(issue)에 관심을 갖고 확산시키도록 하는 데 주목할 수 있음.

한류 팬들은 연예인들의 행보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발언에 큰 흥미를 자발적으로 갖기 때문임.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연예인들을 각종 행사에 참여시키는 데 안주하기보다는 무역, 안보, 영토분쟁, 보건 등 우선적 외교정책의 의도적 목표를 설정하고 고수해 나가야 함.

다만 연예인들의 정치적 참여는 인위적으로 보이기 쉽고 대중문화 사업과 외교 사안이 서로 엮이면서 한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거부가 하나의 외교수단으로 사용

됨에 따라 대중문화 사업의 범세계적 위험성(global risk)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음.  
<https://bit.ly/3hapqbD>

## 5. 북한의 군사역량 North Korea's Military Capabilitie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Eleanor Albert | Dec. 16

분석가들은 북한이 60 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으며, 핵탄두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함. 북한은 120 만명 이상의 병력으로 세계 제 4 위의 군대와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유엔안보리의 제재와 비핵화에 관한 최근 남북한 및 미국간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계속 시험하고 있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는 북한이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 사이버능력을 키우고 개발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https://www.cfr.org/backgrounder/north-koreas-military-capabilities>

## 6. 미국이 한일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법

### How the US Can Mediate the Japan-South Korea Dispute

*The Diplomat* | Xuan Dung Phan | Dec. 16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간의 유대를 재건하기에 애써야 하나, 이전과 같이 피해자들의 우려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실수를 피해야 함. 한국과 일본은 이전에 성 노예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에 국익을 우선한 국가적 대응으로 많은 실망을 샀으며, 이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국가 간의 골을 깊게 했음.

미국은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첫째,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성 노예 및 강제징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유관기관들이 참여한 화해협정을 중개해야 함. 둘째, 미국은 한일양국 중 화해협정에 비협조적인 측에 경제적 불이익을 가해야 함. 셋째, 바이든은 친분외교를 통해 양 동맹국에게 피해자 중심적 해결책이 강건한 3 국동맹을 위한 투자이며 지역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해야 함.

<https://thediplomat.com/2020/12/how-the-us-can-mediate-the-japan-south-korea-dispute/>

## 사단법인 한미협회

03150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809호

81 Sambong-no, Suite 809, Doosan We've Pavilion, Jongno-gu, Seoul 03150, Korea  
Tel: +82-2-730-1181/2, Fax: +82-2-730-1180, Email: koramas@naver.com